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 어른

목도 .....		다 함께
성시 .....	시편 1편 1-3절 .....	인도자
찬송 .....	304장 (통일 404장) .....	다 함께
기도 .....		가족 중(다함께)
성경봉독 .....	이사야 43:1-7 .....	인도자
메시지 .....	"너는 내 것이라" .....	인도자
찬송 .....	563장 (통일 411장) .....	다 함께
주기도 .....		다 함께

### 성경 : 이사야 43장 1-7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느니라

## <너는 내 것이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흠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술작가들이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생명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되기 위해 바치는 대금,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택한 성도들,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를 위해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 셋째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상반부를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행하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 설날 새해 아침, 우리 가족 모두가 귀를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리더십

(요 10:11-13)

리더십의 핵심은 좋은 리더입니다. 리더의 범주에는 부모, 조부모, 교사, 다락방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괄됩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목자, 좋은 리더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양의 옆에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자라도 항상 양의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구역식구들에게 언제나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신뢰감을 주고 존재감을 준다면 그는 좋은 목자요 좋은 리더입니다.

반면 삯꾼 목자는 나쁜 목자입니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요 10:12). 삯꾼 목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리더는 나쁜 리더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1. 코치로서의 리더

요즘에는 상담학이나 교육학에서 코치, 코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치로서의 교회학교 교사, 코치로서의 구역장, 코치로서의 선교회 회장, 코치로서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치는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사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부모 등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구역 모임이 성장하지 않거나 세속적으로 흘러가면 돌이키게 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 역할 모델은 내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성경 읽으면 아이가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이것



김성중 목사  
(장신대)

이 역할 모델로서의 코치 모습입니다.

- 지원자는 서포트(support) 해 주고 옆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 상담자는 상대방의 고민과 걱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좋은 리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Art of Listening(듣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 친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같이 놀아주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 선배란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낸 사람으로서 조언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는 역할입니다.
- 이와 같이 리더는 위의 여섯 가지 역할을 잘 하며 그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야 합니다.

## 2. 올라인(All line) 시대

지금은 현장과 온라인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올라인, 디지로그, 피지털이라는 단어가 시대적 화두입니다. 이 단어들은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모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모인다고 해서 올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해 놓은 단어가 디지로그, 피지컬과 디지털을 합해 놓은 단어가 피지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모이고, 대면으로도 모이고 디지털 안에서도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날로그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한편 인간 본연의 것을 그리워합니다. 디지털 기기, 디지털 문화들이 계속 발전하고 앱들이 개발되지만 인간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 것을, 인간다운 것을, 인간미를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잘 이루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3. 구성원의 참여

지금의 교회학교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구성원의 참여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울러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배, 행사, 프로그램 진행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경 봉독, 봉헌 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케리그마는 말씀 선포를 말하는 것으로 예배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디다케는 가르침과 훈련 (공과 훈련, 제자 훈련)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 안과 밖에서의 봉사과 섬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학교는 위의 다섯 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지난 4주간 동안 진행된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손달익 목사님을 비롯해 강사로 서신 임성빈 목사님, 공진수 목사님, 김성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통해 받은 은혜로 서울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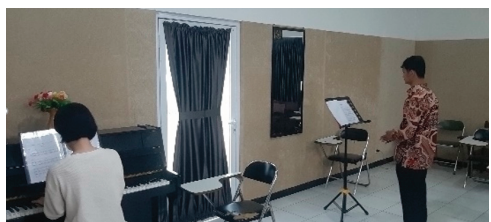


# 아론과 훌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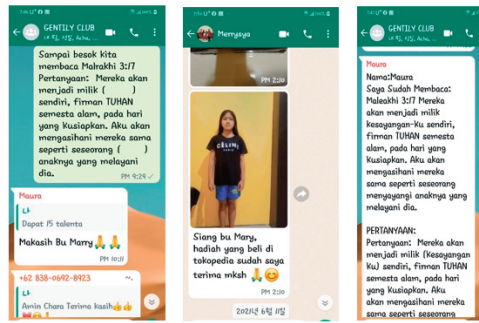
서광종 선교사의 영구 장기 비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단기 장기 비자(KITAS)로 체류하다가 영구 장기 비자(KITAP 5년에 한 번씩 연장) 자격을 얻어 현재 영주권 비자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연말연시를 맞아 담당 공무원들의 느린 행보로 인해 진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수속의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났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과 개인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은 이번 주에 마치고 한 달의 방학기간을 끝내고 1월 중순에 다시 마지막 3주간의 대면 수업(실기시험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자를 위한 졸업 연주회 오디션이 1월 1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는 모두 3명(Wishnu, Septhian, Rico)인데 그중에 성악 전공자인 셉티안(Septhian)이 졸업 시험인 오디션을 통과하면 2주 뒤인 1월 마지막 주에 졸업 리사이틀을 하게 됩니다. 셉티안(Septhian)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라 학교에서는 미래의 교수요원으로 생각하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마바빠(Omah Bapak: 인니어 - 아버지의 집)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젠트리 클럽 매일 성경읽기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18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달란트 시상을 하는데 매번 M(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일등을 차지합니다. M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한 매일 성경읽기 프로그램에서 매일 자신이 읽은 성경을 단독방에 올리는 열심 있는 어

린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어린이입니다. 그 외의 어린이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교육 부흥의 토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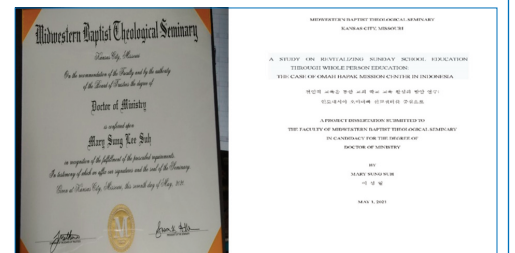
이성일 선교사는 이번 학기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한글학교의 5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한글학교 5학년에 참석한 어린이는 총 6명의 어린이들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어린이들입니다. 글 짓기와 독후감 쓰기와 맞춤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6명 모두 잘 따라와 주어서 독후감도 써 볼 수 있었습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새로운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는 중부 자바 뽕일론 마을의 주민 모두를 위한 장소입니다.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입니다. 선교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성경공부도 했고 방과 후에 모여 공부도 하였고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센터에서

Leo(Love each other : 물물 교환 장소) 프로그램으로 모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과 부활절 행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 장소가 없습니다. 선교센터의 장소로 계약했던 계약 기간이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센터의 모든 집을 저희 가정집으로 옮겨 두고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오마바빠 선교센터를 다시 열고 회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성경공부를 할 수 있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월세를 얻어서 선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멀어서 선교센터를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부지를 구입하고 선교센터의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를 얻은 가정집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하여 싸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면서 집이 모양을 갖추어서 집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집값이 오를 경우에는 다시 그 집을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주위 집들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집세를 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성일 선교사가 미국 미조리(Missouri)주의 캔사스 시티(Kansas City)에 소재한 미드 웨스턴 침례 신학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지난 5월에 목회학 박사(D.Min)학위를 이수하였습니다.



### 기도 제목

1. 인도네시아 무슬람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2.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3.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 졸업연주회를 위하여
4.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회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5.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새로운 장소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서광종·이성일 선교사



#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신청 접수 중

2월 10일(목)까지,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 김승록 집사)는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 신학생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대학생, 신학생,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극빈자, 장애인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

회 봉사에 모범적인 자를 선발 조건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교구 또는 교회학교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10일(목)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7일 오후 찬양예배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 사랑의 떡국



지난 주 새해를 맞아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직접 끓인 사골 육수와 떡국 떡, KF94 마스크를 담임목사님의 감사 편지와 함께 전달하였다.

## 전교인 성경암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31일	월	출 13-15		민 4-7	
2월1일	화	출 16-19		민 8-12	
2월2일	수	출 20:1-23:9		민 13-16	
2월3일	목	출 23:10-25:40		민 17-22	
2월4일	금	출 26-28		민 23-28	
2월5일	토	출 29-30		민 29-32	
2월6일	주일	출 31-33		민 33-36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5(목)'사랑의 쌀 운동'조찬 기도회와 몽골 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개인전 : 3-9다락방 전광영 집사, 한국인 최초로 모스크바현대미술관 개인전시회 1.27-3.31

■ 떡 제공 : 김정열 권사 가정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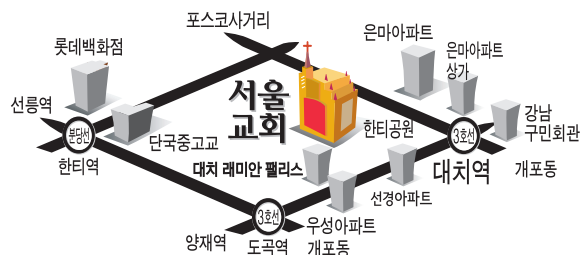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2.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에 힘쓰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이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붙드시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